

ECONOMY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농협 수출협의회 출범... “돈 버는 농업 구현”

초대 회장에 이동희 나주배원에농협 조합장 품목조합 육성·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 앞장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 대표이사, 협의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협 수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농협수출협의회는 신선 농산물의 해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를 기회로 삼고



사업계획·수지예산 등 주요인건 심의가 이뤄졌다.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출을 통한 농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역 시·도 단위 수출협의회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 발족했다.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규약 제정, 2025년 사업계획·수지예산 등 주요인건 심의가 이뤄졌다.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출을 통한 농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이동희 나주배원에 농협 조합장(사진)이 선출됐다. 이동희 한국농협수출협의회장은 “회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설립하게 됐다”며 “협의회를 통해 수출 품목조합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돈 버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출 기자 photo25@

고용률 하락...전남 실업률 3%대로

광주·전남지역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양 지역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취업자와 고용률은 떨어진 반면, 실업자와 실업률은 증가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1.8%) 감소했다.

남자는 42만 7000명으로 6000명(-1.4%), 여자는 33만7000명으로 8000명(-2.3%) 각 줄었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59.8%로 1년 전과 비교해 1.0%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 0.6%)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8000명, -8.1%), 농업·림업(-6000명, -27.3%),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00명, -1.4%) 등에서 감소했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명(8.0%), 일용근로자는 1000명(2.0%) 각 증가했지만, 상용근로

자는 9000명(-2.0%) 줄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14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5.5%)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0.2%p 상승했다.

전남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9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0.8%) 감소했다. 남자는 5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8%) 증가한 반면, 여자는 42만8000명으로 1만2000명(-2.8%) 감소했다.

고용률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5000명, 8.2%), 건설업(6000명, 7.5%)에서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5.4%), 농업·림업(-6000명, -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 -2.8%), 광공업(-1000명, -0.7%)에서는 감소했다.

전남의 자영업자는 29만4000명으로 1년 전 대비 0.4% 늘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12일 서영남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가졌다.

농협 전남본부, 영암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

농협 전남본부는 12일 서영남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가졌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이다.

이날 왕진버스는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료진 12명)과 함께 영암군 확산면,

미암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한방진료, 근골격계 질환 진료, 의약품 제공 등을 실시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출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초등자녀 돌봄’ 근무 확대

10시 출근·5시 퇴근 선택 등 보완...일·가정 양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 돌봄을 위한 맞춤형 근무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까지 출근 가능하도록 시행해온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올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출근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3월부터 2개월

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내내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307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출근 시간 순연에 따른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6일까지 올해 S/S 신상품을 다양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더 그레이트 패션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지원센터 선정

2년 연속 2억1000만원 확보...전국 6개 권역 청년 대상 직무 숙련기회 제공 지역적차 유도

광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 공모에서 호남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해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를 포함해 전국 6개 권역에 6개 기관이 선정됐다.

호남권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상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이달 말부터 1년간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를 2년 연속으로 운영하게 된다.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일경험 사업홍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참여기업 발굴 104개사, 참여기업 컨설팅 100회, 운영기관 발굴 17개소, 운영기관 컨설팅 74회, 사업설명회 6회, 네트워크 회의 4회, 운영기관 정기회의 10회, 일경험 공모전 및 성과홍보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호남권 주요 20개 대학과 일경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

했고, 올해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호남권 청년층 일경험 지원 통합관리’ 목표를 바탕으로 호남권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과 신규 운영기관 7개소 발굴, 기업 발굴 70개사, 일자리 합동설명회 개최, 일경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호남권 청년층 순이동은 마이너스 2만 4000여명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러한 청년층 인재 유출은 출산율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간 주도의 일경험 활성화로 미취업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 새학기 학용품 희망키트 지원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2025년 새학기 학용품 희망키트 전달식을 갖고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학용품키트 800박스(9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광양제철소 신입직원 및 임직원과 가족, 자원봉사자, 수혜기관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희망키트는 지역 이동센터 등 27개소에 배분됐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소의 계층 아이들에게 학용품 키트를 전달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 기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2025년 새학기 학용품 희망키트 전달식을 갖고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학용품키트 800박스(9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며 “제철소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매년 새 학기마다 학용품을 지원해 주신 제철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학용품 키트를 받은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으로 지역사회의 인재

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2017년부터 ‘새학기 학용품 희망키트’로 총 7억3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책상정리함, 플레이트, 라벨프린터, 무선이어폰, 스피커 등 20종의 학용품을 지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신세계·롯데 광주점 패션그룹 초대전 등 봄맞이 행사

광주지역 유통업체가 완연한 봄날씨를 맞아 S/S 등 신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맞이에 나선다.

12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피어리’와 ‘타임’ 등 인기 브랜드의 신상 의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패션 그룹 초대전을 연다.

피어리와 준지 등 인기 브랜드를 가진 삼성물산이 13일부터 20일까지 본관 4, 6, 7층 본매장에서 초대전을 펼친다.

본관 7층에서 만날 수 있는 컨템퍼러리 브랜드 피어리는 고리시 카타리를 추천한다. 혁신적인 소재로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편안함은 물론 캐주얼과 포멀한 스타일 모두에 활용하기 좋다.

본관 4층에 위치한 디자이너 브랜드 준지는 클래식의 재해석을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다. 준지가 추천하는 품목은 하이백 돌면 점퍼인데, 볼륨감 있는 소매 실루엣으로 시그니처 오버핏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빈플레이디스’와 ‘갤럭시’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삼성물산 브랜드들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성 브랜드들은 이번 고객 초대전 기간 동안 더블 마일리지 행사를 진행한다. 한성 더블 마일리지 행사는 고객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구매 금액의 5% 기본 적립에 5%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6일까지 올해 S/S 신상품을 다양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더 그레이트 패션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타임, 마인, 오브제, DKNY, 클럽모나코, 시스템, SJSJ, 오즈세컨, 타임옴, 시스템옴 등은 구매 금액 대비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와 함께 브랜드 포인트 추가 적립 행사를 실시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 첨단산단-전북 군산산단 오늘 동용합산학연협의체 출범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과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가 힘을 모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첨단산단-전북군산산단 초광역 산학연협의체인 미래모빌리티 자동차융합 산학연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모빌리티 자동차융합 산학연협의체는 광주의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 기업과 전북의 친환경 상용차 부품산업 기업을 매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총회는 주관지역인 광주첨단산단 및 연계지역인 전북군산산단 회원사 소개를 시작으로 협의체 주관 승인, 임원 선임, 올해 사업계획이 의결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산학연 협력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틀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 출범을 통해 광주와 군산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R&D과제 발굴·기획, 산학연 기술혁신과제 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학연 협력 모델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총영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장은 “이번 광역협의체 출범을 통해 광주와 군산의 지역주력산업과 미래모빌리티 기술이 융합, 지역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